

‘동탄 트램 2027년 개통’ 기본설계 착수

〈오산과 병점역 연결〉

구체 노선·차량 시스템 결정
설계 끝나면 2024년에 첫삽
서울 삼성역까지 35분 소요

오는 2027년 동탄신도시에 오산과 병점역을 잇는 ‘동탄 트램’이 개통된다.

동탄 트램이 운행되면 주요 철도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화성시가 지난 21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날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한지 한 달 만이다.

이번 기본설계용역에는 유신, 동명기술공단, 경인기술이 각각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1공구), 망포역~동탄역~오산(2공구),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분야를 맡아 오는 2023년 9월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105억 원의 용역사업비가 투입된다. 구조물



동탄 트램 노선도

형식과 시설물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검토를 비롯해 구체적인 트램노선과 트램 차량의 시스템 등이 결정된다.

시는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2024년 첫삽을 뜨고 2027년 말에 트램을 개통할 계획이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사업이자 동탄 2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동탄트램은 총 977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LH가 9200억 원, 화성을 비롯해 수원, 오산시가 573억 원을 분담한다.

세부적으로는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주요 환승역으로 분당선 망포역, 1호선 오산역과 병점역, SRT 동탄역과 연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6월 LH와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동탄 장기동에 6만133㎡(약 1만8190평) 규모의 차량기지 부지를 매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트램은 동탄과 수원, 오산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막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한승 국방위원장, 권오섭 육군협회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막

킨텍스, 해외 40개국 350개사 참가

아시아 최대의 국방·방산 네트워크 플랫폼인 지상 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의 개막식이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DX KOREA 2022는 9월 21일~ 9월 25일 까지 5일간 킨텍스 6~8홀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

는 행사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열려왔다. 무기체계, 전자장비 체계, 해양무기 체계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볼 수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는 군악버스킹,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DX KOREA 2022는 2020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된다. 해외 27개국 국방장관, 9개국 육군총장, 14개국 대표단 등 국내외 기업과 VVIP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

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한승 국방위원장, 권오섭 육군협회장 등 군 인사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국방부의 중심군으로서의 육군 위상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 국산 방산제품의 새로운 수출 창구이자 최대 방산 전시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청소년 흡연으로 주민 피해 심각…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김포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들
하교 후 주택가에서 일탈 행위
도리어 위협까지… 단속 안돼

김포 시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남녀 청소년들이 하교 후 학교 주변 주택가에 모여 공공연하게 흡연, 고성방가 등 도를 넘은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길거리 흡연 등 비행행위 제재 및 선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고등학교 주변 사우동 몽실학교 인근 빌라, 주택가 골목에서 남녀 청소년 10여 명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었지만, 단속은커녕, 그 누구의 제지조차 없었다. 매일 하교 시간인 오후 4시



학생들이 파우고 버린 담배꽂초들

에서 5시 사이 청소년들의 내 뽕은 담배 연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주부(하이즈 발라)는 “첫돌과 3살 먹은 아이 때문에 이동해 줄 것을 사정해봤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최모 씨(67) 역시 “하교 시간 때면 남녀 학생 10여 명이 집 앞 주택가 골목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도 쳐봤지만 도리어 신변에 위협을 당하기 일쑤여서 이제는 그저 모른 척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흡연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하교 시간대만이라도 학교와 경찰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 측 이인수 교사(선도부장)는 “그러잖아도 주민들 민원이 일주일이면 수십 차례 접수돼 하교 시간에 자주 순찰을 벌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청소년 흡연을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적발해도 교내 봉사자 전부이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종욱 과장은 “흡연에 관한 청소년 비행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단순히 현지 계도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학교 측과 어머니 경찰 등과 협력해 하교 시간대에 맞춰 더 이상 주민들이 흡연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기도가 ‘확’ 막혔을 땐 ‘탁’하고 하임리히법!

■ 기고

정 상 권

양주소방서장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법 하나를 꼽으라면 심폐소생술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두면 언제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에는 심폐소생술 말고도 한 가지가 더있다.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기도 폐쇄는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폐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임리히법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일례로 8월 23일 07시경 양주시 백석읍 소재에 한 요양원에서 50대 남자가 식사하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청색증이 와 119에 신고를 했다.

관계자는 신고 후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음식물이 제거되었고, 의식이 돌아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통해 사람을 구했다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더욱이 9월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있어 올가를 모두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응급처치 방법 중 기도폐쇄시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하임리히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먼저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되면 우선 말을 시킨다.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계속하며 숨을 쉴 수 있다면 방해하지 말고 계속 기침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경우는 기도 폐쇄로 판단한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부탁함과 동시에 하임리히법을 즉시 실시한다.

환자 등 뒤에서 주먹을 왼손을 배꼽과 명치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고 그 주먹 왼손의 엄지가 배에 닿도록 한다.

그리고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밀어 올려 음식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기도폐쇄 환자가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에는 가슴밀어내기 법을 시행해야 한다.

가슴밀어내기 법은 환자를 서게 하거나 앉힌 뒤 환자 뒤에 서서 팔을 환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감싼다.

한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쪽을 흉골 중앙에 대고 반대편 손바닥으로 주먹 왼손을 감싼다. 이후 양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빠르게 수평으로 압박한다.

영·유아의 경우 주로 장난감, 동전, 사탕 등이 기도를 막아 발생하며 성인에게 하는 처치법과는 방식이 다르다.

보호자는 팔 위에 영·유아가 바닥을 보도록 눕히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턱을 고정한다. 팔을 허벅지 위에 올린 후 다른 쪽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5회 정도 두드리고, 뒤집어 가슴 누르기를 5회 실시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 시행하며, 환자가 의식을 잃는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기도 이물 폐쇄의 원인은 대부분 음식물이다.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다.

특히 고기나 떡은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먹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도록 한다.

응급처치만 적절히 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알지 못해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임리히법, 이 간단한 응급처치법 숙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119대원이 되기를 바란다.

양평군,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페스티벌 개최

10월 15일... 10km·6km 중 선택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0월 15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아내는 두물머리 물래길을 걸으며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2022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걷기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로 양평군 양서면이 주최 및 주관하고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걷기 코스는 양서 문화체육공원에서 출발해 두물머리, 두물경, 수폴로양수리, 북한강 철교 자전거길을 지나 10km와 6km 두 개 코스 중 선택할 수 있다. 물래길의 주요 지점인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이 머리가 만나는 곳으로 걷기 코스를 걸으며 ‘여정 둘, 강하나’라는 주제로 ‘내



양평 두물머리 전경.

양평군 제공

몸과 하나 되기, 자연과 하나 되기’를 진행한다. 물길, 숲길을 걷는 즐거움에 그림 같은 풍경을 더해 나와 자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6km 코스의 경우 풍경 안내자가 참가자와 동행하며 산책길에서 만나는 풍경이야기를 제공한다.

김영복 기자

양주시 남면, 오는 25일 감악문화축제 열린다

오전 11시, 군악대 시가지 퍼레이드 시작

양주시 주민자치회 최대의 축제인 남면 감악문화축제가 오는 25일 신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감악문화축제는 남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남면행정복지센터,남면농협, 남면사회단체 후원으로 진행된다.

축제는 25사단 군악대의 시가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소놀이곡의 식전행사와 남면 윈드오케스트라, 초창가수 (황후, 금소연)와 25사단 소조밴드의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오전 11시 대회장인 양형규 주민자

치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가야금 병창, 국악공연, 우리가락 민요봉사단체, 태권도 시범단 공연, 뮤지컬 라인 공연, 고고 장구, 플루 요가, 라인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감악산 시민노래자랑, 불꽃 놀이, 경품 추첨, 먹을거리 장터가 마련되었다.

이밖에 상설 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피리키피아 곤충·벌자리 체험, 양주도가, 아름다운드론 비행체험, 나린비치의 천연비누·방향제 만들기 체험, 탄소 중립 체험, 양주시민방송 YCN, 서정대 도시정원사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이호민 기자